2023. 2. 15.(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2월 15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보도자료

담당부서 :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관광산업과장	김현주	2133-2770
관광산업정책팀장	김은영	2133-2772
담당자	범미선	2133-277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7쪽

서울시, 사라진 조선관청 '군기시' 증강·가상현실(AR·VR)로 디지털 복원… 메타버스 앱으로 체험

- 2.15.(수)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조선시대 군수물자 제조했던 '군기시' 복원행사 열려
- 서울시-문화재청-우미희망재단-제일기획, 조선시대 관청 디지털 복원한 첫 민관협력 프로젝트
- 문화유산 메타버스 앱'공존' 공개…증강·가상현실(AR·VR)로 군기시 관청 관람 및 무기류 체험 등 역사 관광 콘텐츠 제공
- 군기시, 올 하반기 경복궁 궁중의례 재현… 가상과 현실 넘나드는 '문화유산(헤리티지) 메타버스' 구축

□ 세계 최초의 로켓 무기인 '신기전'을 비롯해 조선시대 군수물자 제조를 담당했던 중앙관청인 '군기시(軍器寺)'가 140여 년 만에 디지털로 복원돼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문화유산(헤리티지) 메타버스' 앱을 통해 옛 군기시 현장에서 개발됐던 신기전 화차 등 실제 무기 제조 장면을 관람하고 전통무기류인 화포, 총통 등의 발사체험도 해볼 수 있다.

○ '군기시(軍器寺)'는 1392년(태조 1년) 설치돼 병기 등 군수물자 제조를 담당했던 관청이다. 지금의 서울시청(신청사) 일대에 있었으나 1884년(고종 21년)에 폐지되면서 그 기능을 잃었다. 이후 2009년 서울시청 신청사 건축 과정에서 군기시 관련 유물이 대량 발굴됐고, 현재 서울시청 지하 1층에 '군기시 유적전시실'이 운영되고 있다.

□ **서울시는 문화재청·우미희망재단·제일기획과 함께 협력해 추진한 '군기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증강(AR)·가상현실(VR)로 복원한 '군기시'를 15일(수) 공개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 문화재청, 우미희망재단, 제일기획과 함께 '문화유산 보호 및 융복합 문화관광 교육콘텐츠 활성화' 협약을 맺고, 작년 2월에는 군기시 단일주제 첫 학술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1년 6개월간의 군기시 복원작업에서 서울시(전시공간, 운영인력 지원)와 문화재청(역사 고증 및 감수 담당)이 사업총괄을 맡은 가운데, 우미희망재단은 예산지원에 나섰고, 제일기획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콘텐츠 기획, 메타버스 앱 등 프로젝트 실행을 맡았다. 이 밖에도 김왕직 명지대 교수, 이왕무 경기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과 디지털 기술 분야의 강소기업들도 참여해 군기시 복원 작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 **이와 관련 서울시는 15일(수) 10시 30분 서울시 신청사 지하 1층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이석준 우미희망재단 이사장, 김종현 제일기획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유산(헤리티지) 메타버스 공개 행사'를 개최한다.**

□ **이번 '군기시 프로젝트'는 2019년 돈의문(敦義門, 서대문) 복원에 이은 '헤리티지 메타버스(Heritage Universe)' 구축 작업의 하나다. 시는 돈의문(성문), 군기시(관청)에 이어 향후 조선시대 대표 궁궐인 '경복궁(궁궐)'에서 열렸던 다양한 궁중 의례를 메타버스로 재현할 계획이다.**

○ '헤리티지 메타버스(Heritage Universe)'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보이는 문화유산과 보이지 않는 문화유산이 공존하고,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체험할 수 있는 문화유산 관광 콘텐츠다.

□ 지난 2019년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기술로 복원한 돈의문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이번 군기시 프로젝트는 조선시대 무기제조 중앙관청을 디지털로 복원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우선 1884년(고종 21년) 군기시가 기기국에 통합되면서 사라졌던 조선시대 군기시 관청 건물의 복원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옛 군기시의 내·외부 모습을 증강현실(AR)로 생생하게 볼 수 있고 가상현실(VR)기기로 군기시 전체 모습을 조망해 볼 수 있다.

□ 특히, 서울시가 헤리티지(문화유산)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 '공존'을 선보임에 따라, 시민들은 군기시 발굴 유적지에서 군기시 건물과 무기류(신기전·변이중화차 등), 건물 내부의 무기 제작과정 등을 증강현실(AR)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군기시 유적전시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군기시 관람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현장 관람객과 원거리 전 세계 방문객이 공간을 초월하여 문화유산 디지털 공간에서 공존·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존' 앱은 현재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곧 출시 예정이다.

□ 군기시 유적전시실 옆에는 군기시 가상현실 체험 공간도 조성했다. 관람객은 움직이는 의자(모션체어)에서 가상현실(VR) 영상을 통해 군기시의 역사와 운영을 체험하고, 행주대첩을 배경으로 군기시 관련 무기류의 특징과 위력을 실감 나게 재현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관람편의를 위해 시민청에 배치된 관광안내사를 통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체험장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기시 유적전시관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8시(단, 가상현실(VR) 체험 공간 운영시간은 월~토, 오전 10시~오후 7시)이다.

□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은 현대적인 대도시임과 동시에 20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 도시다. 역사 도시 서울이 민관협력을 통해 역사와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역사 관광자원을 만들어 냈다”라며 “군기시가 디지털로 복원됨에 따라 군기시를 가상과 현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역사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행사개요
2. 군기시(軍器寺) 증강(AR)·가상현실(VR) 체험 소개

붙임 1 행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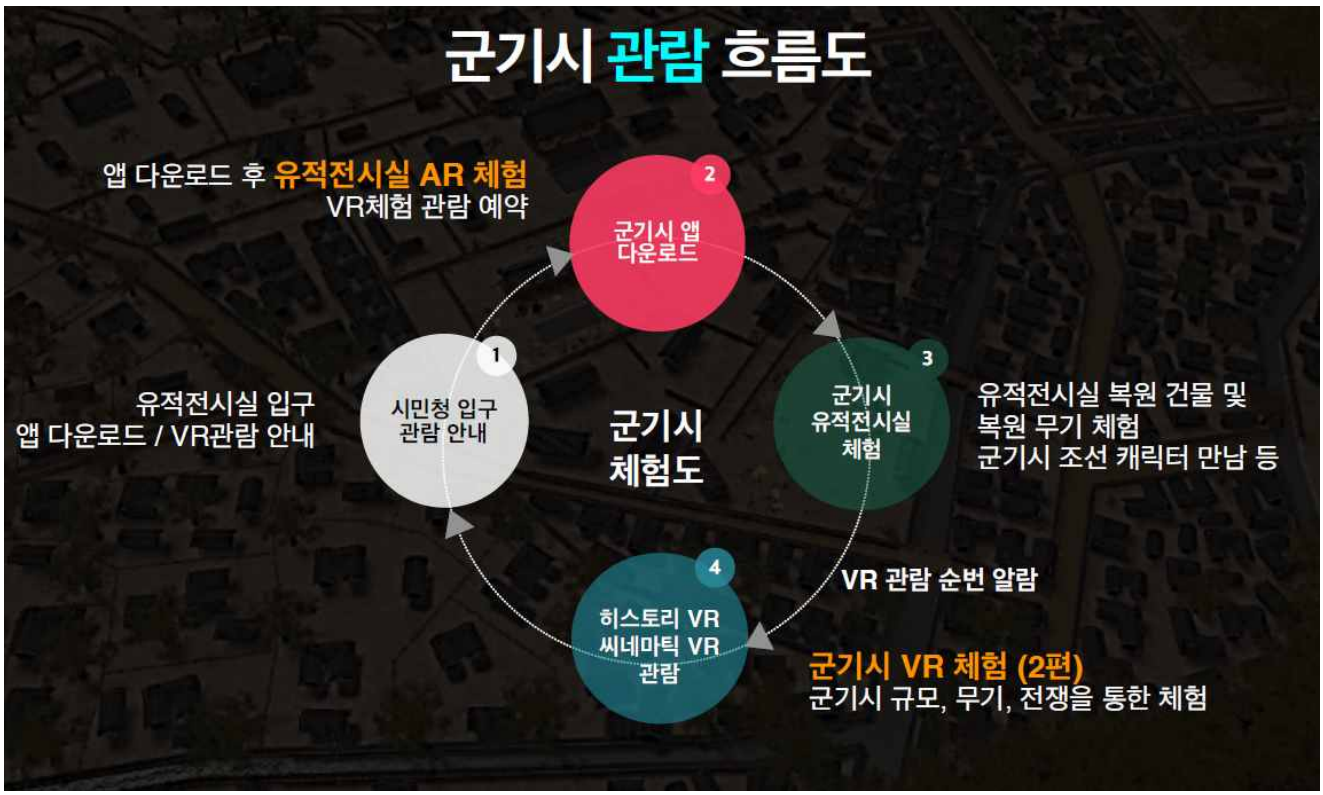
▢ 행사개요

- ㅇ 일 시 : ’23. 2. 15(수) 10:30 ~ 11:30
- ㅇ 장 소 : 시민청 지하 1층 (활짝라운지, 군기시 유적전시관)
- ㅇ 참 석 : 서울시 행정1부시장, 문화재청 차장, 우미희망재단 이사장, 제일기획 대표이사 등 50여명
- ㅇ 행사내용 : 개회, 경과보고, 자문위원해설, 시연 등
- ㅇ 행사주최 : 4개 기관 공동주최(서울시, 문화재청, 우미희망재단, 제일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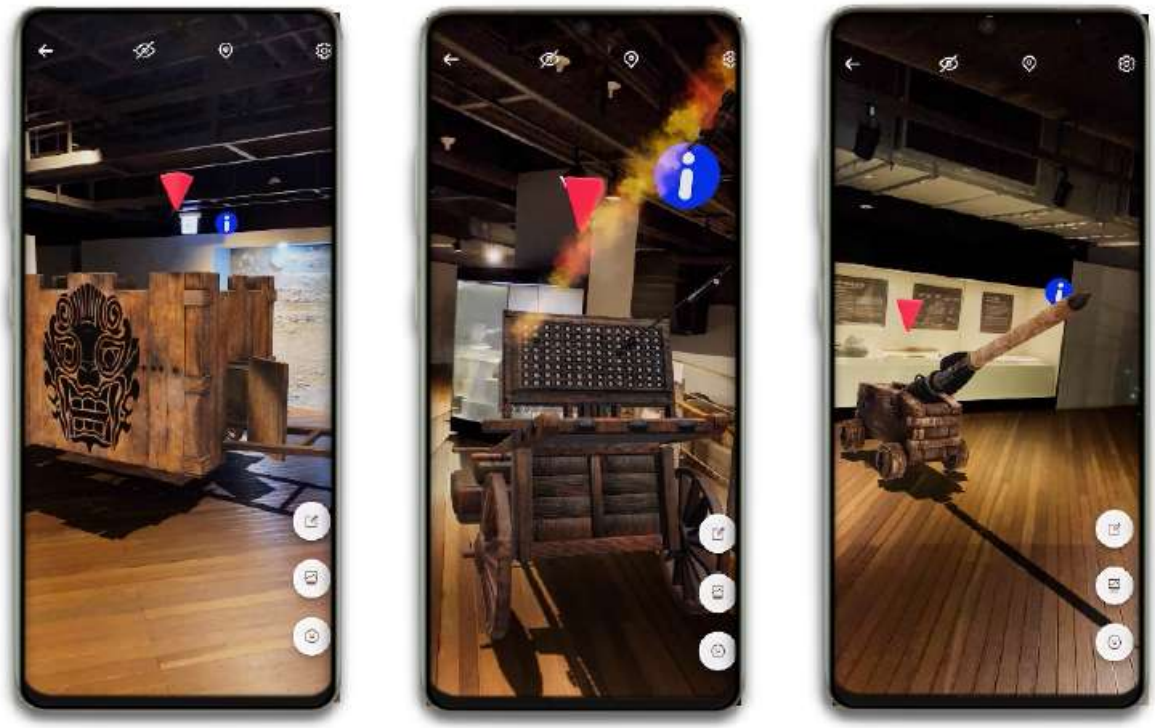
▢ 진행순서(안)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시민청 활짝라운지	10:30~10:35 (05’)	개회 및 인사	서울시 아나운서(유재린)
	10:35~10:40 (05’)	경과보고	문화재청(사무관)
	10:40~10:50 (10’)	문화재 자문위원 해설	김왕직 교수(명지대 건축학과) 이왕무 교수(경기대 사학과)
	10:50~11:02 (12’)	축사	행정1부시장, 문화재청 차장, 우미희망재단 이사장, 제일기획대표이사
	11:02~11:05 (03’)	기념 촬영	
군기시 유적전시실	11:05~11:15 (10’)	군기시 유적전시관 이동 증강현실(AR)체험	
	11:15~11:30 (15’)	가상현실(VR) 체험존 오픈 테이프 커팅, 체험 및 행사 종료 안내	

붙임 2 군기시(軍器寺) 증강(AR)·가상현실(VR) 체험 소개



○ 군기시 증강현실(AR) 체험(무기)



○ 군기시 메타버스 체험

○ 군기시 가상현실(VR)_군기시 무기와 행주대첩